17과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창세기 32장을 찾겠습니다. 27절~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올해는 봄이 좀 일찍 온다고 그러죠

이상기온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 동영상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엘 고어 맞죠

미국 부통령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inconvenient truth라고 불편한 사실 그런 영환데요

환경단체 있으면서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10년 후에는 북극에 북극곰들의 익사시체가 많이 발견될거라고 그래요

북극곰들이 얼음이 있어야 사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 얼음이 없어져서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시체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걸 보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봄도 일찍 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지막때를 사는 것이 분명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야곱의 얘기가 25장부터 49장까지 나와요

반 이상 반 정도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야곱의 삶을 쭉 읽어보면요

한 편의 잘 짜여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야곱의 생이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공과로 야곱을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목에 맞게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야곱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랐으면 아주 평탄하게 쉽게 갈 수 있었던 삶이 자기 생각과 노력으로 너무나 힘들게 먼 길을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분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들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시대 말로 하면 이런거에요

세상에 아주 밝은 사람 들만 나가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주 그 사리분별이 있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어디 가면 물건이 싼지 인터넷 쇼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전자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빠삭하게 알고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것을 들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야곱은 종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용했다라는 표현을 우리 시대로 표현으로 해보면 내면세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밑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딱 아셨잖아요 그

랬던 것처럼 야곱은 내면세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그런게 있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야곱의 마음을 온갖 사로잡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라는거죠

장자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야곱이 마음에 두고 있었을까

장자권은요 첫 번째로 물적 권리가 있었어요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에 비해서 갑절이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게 있는데 영적인 특권을 갖고 있어요

장자가 다시 얘기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권한을 갖는거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장자가 갖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차지하려는 투쟁의 삶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된거에요

저희 교구에 쌍둥이 자매님이 두 분계셔요

그래서 제가 야곱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님도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배째고 나와서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거 정말 의사가 누구를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너무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런데 이제 야곱은 그 투쟁의 삶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된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장자가 되지 못한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그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요 결국에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권을 뺏어내죠

야곱은 냄새가 무엇인지도 잘 알았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축복권을 인간적인 관계속에서 뺏어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딱 개입시켜서 뺏어내요

얼마나 야곱이 깊은 묵상과 통찰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뺏어내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거기보면 맹세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어낼 때는 하나님을 거쳐서 뺏어낸거에요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주잖아요

그 맹세가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 아주 잘 알았다는거에요

다시 얘기하면 가정교육할 때 좋은 태도로 올바른 태도로 그 축복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맹세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는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는거죠

에서는 그 얘기만 시작하면 어떡하면 빨리 나가놀까 이런것들만 고민했겠죠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기었더라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망령되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주의하지 않는 것을 망령되다고 얘기하는거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곧 망령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은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23절 한 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의 삶을 계획하셨죠?

계획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거죠

우리는 혹 기도를 하고나서 내가 생각한 시간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방법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의 시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실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는 욕심때문에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게 됩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입어서 야곱의 삶을 잠언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잠언 19장 한 번 보죠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장자권에 대한 지식은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발이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너무나 먼 과정을 험난하게 거치게 되는거죠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곱처럼 끈질기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뤄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간을 봉사를 하죠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얍삽한 사람이었고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잔머리의 대가였어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단련하셨냐면 그보다 더 고수인 외삼촌 라반 밑에다

가 딱 넣어놓은 거에요

우리가 혹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다가 나보다 더 강적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그렇게 단련하셨어요

그래서 라반밑에 가서 라반의 사기극에 속아서 아내를 둘을 얻고 나름대로 거기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죠

우리시대 표현으로 하면 어줍짢은 유전공학으로 점많은 양을 막 만들어내서 자기 소유로 많이 삼잖아요?

보면 그 둘 사이의 두뇌플레이가 대단한거에요

사실은 우리 시대에 그 기업드라마를 찍어도 둘 사이의 이야기 가지고 충분히 찍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라반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뭐 왜 봉사를 7년이나 했을까?

그게 이제 지참금 제도 때문에 그래요 딸을 한 명 데려가면 그 집에서는 일꾼이 한 명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가야되는데 야곱은 빈털터리였죠

그래서 몸으로 떼웠어요

7년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빈손들고가서 큰 거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명석했고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야곱은 결국 자기 생각갖고 살다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못하고 온갖 고생만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죠

야곱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삭이 결혼한지 20년만에 쌍둥이를 낳죠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장막에서 77세까지 부모와 함께 살다가 15살 때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죠

그리고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하고든요?

야곱은 80이 넘게 혼자 살아요

그리고 77세에 속임수르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84세에 첫 결혼을 해요

7년동안 일하고 나서 97세까지 거기서 살면서 아이를 낳죠

12명을 낳아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리고 97세에 자신의 본향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0살까지 살아요

거기서 그런데 97세에 돌아와서 130살까지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며 살아요

쉬운 삶이 아니죠?

그러고나서 130살에 바로 앞에 서죠

그리고 유명한 간증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 험악한 삶이 130년이다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147세에 죽어서 미라가 되죠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약한 인간의 존재였죠

그럼에도 그는 온갖 자기 계획과 자기 노력으로 그 삶을 쉽게 좋게 얘기하면 개척하며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닦아놓은 길이 있고 닦지아니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

잖아요?

닦아놓은 길은 그냥 가면 되요

닦지 않은 길은 자기가 개척하며 가는거에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그 여정이 어렵겠냐라는거죠

창세기 32장 한 번 보시죠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한계에 부딪혀요 자기 삶의 한계.

그 자기 삶의 한계가 어디였냐면 에서를 만날 때 드디어 자기의 모든 자원은 고갈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해낼 수 잇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딪히게 되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움직여요 기도하는 것도 잊지않아요 400명의 군사가 오니까요 머리를 썼죠

자기 소유를 반반씩 나눠요

그래서 형이 혹 이쪽을 치면 반은 건지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그리고 형 에서가 팥죽을 좋아했던 것처럼 선물을 좋아한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먼저 또 딱 보내죠?

그리고 감정이 좀 풀어지면 뒤따르려고 자기는 뒤에 남아요

그래도 마음이 안 풀려서 모든 소유와 처자식을 먼저 다 보내죠?

그러고도 마음이 안풀려요

그래서 얍복 강가에서 안절부절못하게되요

결국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7절보시죠 32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처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렵고 답답했어요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다보니까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는거에요

여러 수단을 준비하고 여러 계획을 세웠어요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할 수 밖에 없었다는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게 야곱에게는요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었던거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의 삶 속에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기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아왔던 야곱이요 이 이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사도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

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셔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거죠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금방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특히 그렇잖아요 인간이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뭔가 해낼 수 있는게 없어요

특히 병같은거 그렇죠?

멀쩡하던 사람이 소화가 안 되서 병원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사람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질 때 자기 한계를 깨닫도록 되어있다는거에요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도 못 깨닫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처럼 하셔요

절망의 끝까지 하나님은 밀어붙여요

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꺾이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러니까 괜히 고집부리다가 코너에 몰리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미련하게도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걸 알게 된다라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될 이유가 거기 있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곱은 딱 깨달았어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매달려요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매달리죠?

마치 이 모습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수단, 자기 생각, 경험 이런 것으로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거에요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기 힘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되지않는 그리스도인 결국에는 환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뤄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나만의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나님은 답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실거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요 자기연민에 빠지죠

나만의 독특한 이 고난을 누가 이해할거냐 물론 옆에 있는 동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옛날에 누군가 한 번은 이 문제로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줬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라는거죠

야곱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과 야곱을 비교해보면 욥은 좀 달랐어요

욥은 이해는 안됐죠 자기가 받는 고난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다는 거에요

욥기 23장 보시죠 욥기 2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뜻이 있으실거에요 하나님이

이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거에요

그런일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많아 았다라는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방법보다 더 낫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셔요

왜?

그거를 꺾으시려고 기도응답으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게 되죠?

자 이 상상을 한 번 해보세요 씨름하고 있는 모습 서로 붙들었어요

서로 힘을 겨뤘어요

끈질기게 싸우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참 끈기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머리도 좋았고 끈기도 있었고 그죠?

참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씨름하고 있다가 환도뼈를 친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푹 주저 앉는거에요

야곱은 푹 주저앉고나서 나 죽겠다고 소리친게 아니에요

주저앉고 나서도 끈질기게 붙잡았잖아요 그 끈기가 대단한거죠

그래서 내 힘과 수단 자기가 의지는 방법이 무너져내린거랑 똑같은거에요

자기의 힘의 원천이었던 두 다리를 버티고 있었던 환도뼈가 주저앉아 버린거잖아요?

푹 고꾸라지면서도 절망과 그리고 한 쪽에는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가진거에요

그래서 천사를 끝까지 붙잡죠?

주저앉아 쓰러져있으면서도 붙잡은거에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깨지는거에요

그리고 내 힘의 원천이 깨지는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거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정없이 깨버린거에요

그래서 이제 힘을 낼 수 없는 존재가 됐죠?

힘의 원천이 사라졌어요

뽕나무는 토양에서 자라게 되있어요

그런데 그게 봅혀서 바다에 심기우면 자랄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뽑아서 힘의 원천에서 뽑히거잖아요

자기 힘의 근원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를 교육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

렸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는 새끼가 나올 때쯤되면 제일 먼저 하는게 뭐냐면 둥지를 없애버리는거에요

새끼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잘 살았던 보금자리인데 갑자기 엄마가 없애버리는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왔다갔다 하겠죠 그때 엄마 독수리가 민데잖아요 절벽 아래로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죽는다고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내려가서 날개로 새끼를 딱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려놔요

뭐 올라가봤자 둥지도 없는 봉우리 또 밀어요

떨어지면 또 받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거랑 똑같은거에요

우리가 꼭 의지하고 의뢰하는 힘의 원천 거기에서 뽑혀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다 같은 뜻에 딱 심기우는거에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거에요

야곱의 그 육신의 기력이 끝나서 이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이 저는 다리가지고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겠어요?

완전하게 절망과 좌절을 받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평생 야곱은 절뚝거리며 살았어요 절뚝거릴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얍복강이 기억났을거에요

다윗도요 시편 51편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죠?

다윗은 야곱의 삶을 아주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죠

그 꺾으신 뼈가 우리에게는 다 있을거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신게 있을거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써 정말 자기 힘의 근원이 없어졌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인도할 수없다라는 것을 알게됐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세요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돌아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사실 야곱은요 자기 이름에 핸디캡이 있었을거에요 그죠?

너는 이름이 뭐니?

저는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그 참 그렇겠어요?

내 소유 중에 남이 사용하라고 갖고 있는게 있죠?

그게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인데 항상 그것을 남이 써요 내 이름인데

야곱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물어보면 좀 그랬을거에요

대답하자니 좀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름이 뭡니까? 잔머리의 대가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이름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 정말 듣기 싫은 질문을 받는거에요

대답하기 싫은 질문을 그런데 보세요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너 어떤 놈이냐?” 이렇게 물어본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건 회개하는 자기의 고백과 같은거에요

저는 이때까지 남을 남 앞에서 잔머리 굴리고 살았습니다

그거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야곱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라는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셨죠

다시 되새겨주신거에요

자기 상태를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우리도 가끔 그런거 한 번 물어볼 때 있지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가 가끔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을거에요

그때 우리가 이 질문을 동일하게 받는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죠?

그 야곱은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다시 보게 됐어요

그게 회개의 자기 고백이었다는거죠

이 질문은요 야곱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실제로는 누가 이겼나 한 번 보세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이 이겼다라는 표현은요

야곱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승리했다라는거에요

그렇지않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 이름을 알아서 뭐하게요

이랬으면 야곱은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죠?

야곱은 자기 자신이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다 무너진거에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거죠

우리도 우리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지 못하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얍삽하고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거에요

그것을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축복하셨다라는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자기 육신에 의해 살고 간사하게 살고 자기 지혜와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사람이 된거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삶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삶이 계속적으로 순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과정도요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과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 축복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는요

항상 내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집안싸움이었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후로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요

그가 축복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요 벧엘로 가야되는데 어디로가죠?

세겜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막내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욕을 당하죠

그리고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요 장자 르우벤이 서모랑 동침하죠?

가족 안에서 폐륜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가장 좋아했던 아들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 라헬도 죽었죠?

객사하잖아요

처음에 라반이 레아를 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레아에게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아는 열조의 무덤에 장사가 되요 레아는

그런데 라헬은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해버려요

하나님은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게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생각에 라헬이 더 예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와 더불어 싸웠던 사람이에요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자신이었던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는 많은 외적인 싸움도 겪어냈었어야 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는 야곱을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범접치도 못했죠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변정리를 해주신거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세겜에서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죠 디나를 통해서

그리고나서 야곱이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제 이 세겜사람들하고 싸우고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됩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5장 1절에 보세요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답이 뭐였냐면 벧엘로 올라가라였어요

벧엘로 왜 구체적인 답이 없이 벧엘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벧엘로 가서 하나님과 처음만났던 그곳에 가면 언약이 기억나게 되있다라는거에요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답을 그렇게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삶의 어떤 세세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이상하게 답은 없고 가야되는 모임만 많아지고 그러면요 가셔야되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거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차고 넘치는 요단강가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민 안했겠어요?

여기 어떻게 건널거냐 이걸 건너가야되는데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웠을거에요

얕은데를 찾아볼까?

아니면 돌다리를 놔볼까?

막 고민했죠

그때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이 뭐였냐면 스스로 성결케하라에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를 어떻게 건널거냐 방법적인 것을 막 한참 연구를 했잖아요?

이 언약궤를 먼저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거냐?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스스로 성결케하라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답은 있다라는거죠

우리가 삶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기도를 하고 매달릴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답을 주세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삶에 답이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건요

그런 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있다는게 아니죠?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시다라는거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끝날 때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회개하게 된건요

야곱이 보낸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한참 고민하고 긴장할 때 그럴 때 의외로 쉽게 답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상치 못한 어떤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신거죠

내가 운이 좋거나 시간을 잘 맞췄거나 그게 아니다라는거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풀어주신 에서의 마음을 보고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다라는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

야곱은 태어날 때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죽을 때는 이스라엘로 죽어요

창세기 50장 보죠

창세기 50장 2절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거기에는 야곱을 뭐라고 기록해놨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삶인 거에요

태어날 때는 야곱이었죠?

죽을 때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모든 삶의 과정이 이래야되요

우리도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거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주 험악한 과정이 있었죠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인생의 험난한 과정이 줄어드는거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이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요

하나니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되기까지 6시간의 수치스러운 고통을 참아냈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앞에 서기까지 겪게 되는 사소한 불편과 짜증스러움은 참아내야 되요

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6시간의 십자가 고통을 참아냈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살도록 하기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데서

생겨나는 불편함 어려움들 이런 것들 견뎌내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와있는거죠

오늘 하루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라는거 우리가 기억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 주께서 친히 담당해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은 주님께 저희들 삶을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